

Joy News

November 2025

알리는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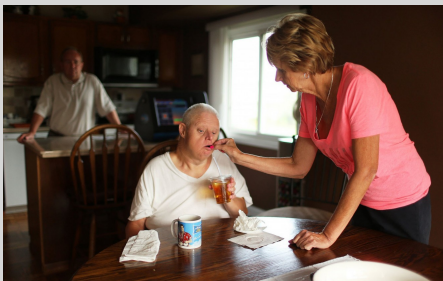


1. 조이우간다 특수교육 통합학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1단계로 기획/설계, 자금 모금 단계에 있습니다.
2. 특히 교사로 헌신하실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형태의 선교사 지망생도 원합니다.

장애관련 소식

다운증후군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미국 전역의 의료진이 다운증후군 성인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출범한 이 이니셔티브는 의료 전문가를 위한 2시간짜리 무료 온라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이는 의사 면허 유지를 위한 지속교육학점(CME credits)으로 인정됩니다.

이 교육은 전미 다운증후군 협회(National Down Syndrome Society, NDSS)가 개발한 CARE Down Syndrome이라는 종합 정보 플랫폼의 일부로, 여성 건강, 체중 관리, 알츠하이머병 등 다운증후군 성인에게 특화된 건강 정보를 폭넓게 제공합니다.



우간다 장애인 가족의 자립을 향하여



조이우간다는 장애아동을 둔 가족들의 지속가능한 자립 모델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장애아동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파일럿 가드닝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가꾼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수확하며 작은 성공과 큰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재배 실습을 넘어, “일할 수 있는 기쁨”과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을 배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장애아동들과 함께 자립 연구를 하는 부모들이 이렇게 활짝 웃으며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조이우간다 사역이 한걸음 한걸음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조이우간다는 앞으로 이 가드닝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장애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직업학교(Training & Vocational School)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장애아동 가족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기쁨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서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조이우간다는 제 1 직업학교에 이어 새로운 사역 개척지인 키왕가 지역에 제 2 직업학교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매월 식량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장래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조이우간다 식구들이 우간다에 지도자로 우뚝 설 날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사랑의 씨를 심습니다.



기도제목나눔



1. 조이 우간다 특수교육 학교 건립을 위해/ 직업학교 증설을 위해
2. 교사 및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을 위해
3. 조이우간다/Ndejje University 대학원 과정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을 위해
4. 재원 충당과 후원자를 위해

후원방법

1. Check로 보내실 경우:
Pay to the order of "Joy Center, Inc.". Memo: _____
2. Zelle, Paypal, Venmo의 경우:
joycenter@hotmail.com

We appreciate your gift of love in support of Joy Center, which is a non-profit organization 501(c)(3).



조이우간다 도서관/태권도 사역 보고

오랜만에 우리 조이우간다 도서관과 태권도 사역 보고를 드립니다. 소로티 지역으로 옮겨 사역하고 있는 조이우간다 도서관은 소로티 열린유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등학생(1학년~7학년)은 매주 한 시간씩 조이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간다 학교에는 공식적인 체육 과목이 없지만, 소로티 열린유초등학교는 현지 태권도 사범(2단)을 체육교사로 임용하여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태권도 중심으로 운영되며, 조이우간다에서 기증한 도복과 태권도 장비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 태권도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아, 2년 전 지역 신문과 TV방송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은 태권도를 통해 규율, 존중, 협동심을 배우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길러가고 있습니다.

소로티 열린유초등학교는 조이도서관과 태권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직원, 학생 모두 조이우간다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배움과 꿈이 자라나는 학교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